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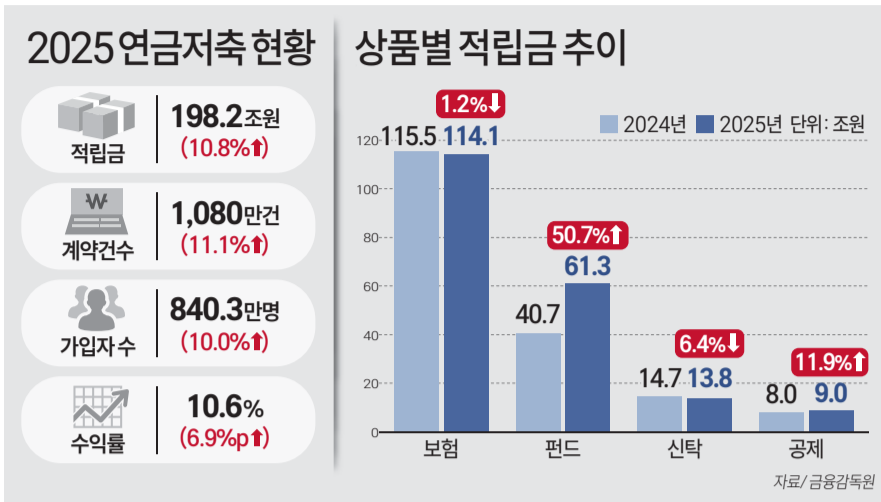
연금저축 적립금 200조 육박... '펀드·ETF' 중심 머니무브

1년새 적립금·가입자 수 10% ↑
펀드 등 30%대 높은 수익률 영향
원금 비보장... 손실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증시 강세를 타고 연금저축 시장이 2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앞세운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노후자금 보험에서 펀드·ETF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178조9000억원) 대비 19조3000억원(10.8%) 증가했다. 증가율 역시 2023년 4.9%, 2024년 6.5%, 2025년 10.8%로 확대되며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 가입자 수도 84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76만1000명(10.0%) 늘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61.3조... 50% 이상 증가
연금저축 시장 확대를 이끈 것은 연금



저축펀드였다.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40조7000억원) 대비 20조6000억원 증가하며 50.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7.6%, 2024년 22.7%, 지난해 30.9%로 가파르게 확대됐다. 반면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11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며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금저축신

탁 역시 13조8000억원으로 6.4% 줄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두고 "적립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매회사별로는 보험회사가 114조3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57.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적립금도 55조4000억원으로 27.9%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금융투자회사 가운데서는 미래에셋증권이 1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9조

8000억원), 한국투자증권(7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금저축 납입액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연간 납입액은 13조4886억원으로 전년보다 18.1% 늘었다. 이 가운데 펀드 납입액은 8조8482억원으로 49.3% 증가하며 전체 납입액의 65.6%를 차지했다. 보험·신탁·공제상품 납입액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연금저축상품 연간 수익률 10.6%... 펀드·ETF 29.3%

투자자들의 선택이 펀드로 쏠린 배경에는 수익률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10.6%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펀드·ETF 수익률이 29.3%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펀드는 31.3%, ETF는 27.4%를 기록했다. 반면 보험은 0.8%, 신탁은 4.0%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펀드와 ETF 수익률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가입에서도 펀드 선호 현상은 뚜렷했다. 지난해 신규 연금저축 계약은 144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51.9% 증가

했는데, 이 가운데 펀드 계약이 134만9800건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펀드 신규 계약은 전년보다 60.1% 증가한 반면 보험과 공제상품 신규 계약은 오히려 감소했다.

증권사 가운데 신규 계약 유치 실적은 카카오페이증권이 31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증권 31만건, 미래에셋증권 27만6000건, 한국투자증권 14만4000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신규 계약이 금융투자회사로 집중되며 증권사 간 연금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높은 수익률만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투자성향과 재무상황, 상품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은퇴자산 성패, 높은 수익보다 손실 겪는 시점에 달려”

NH아문디자산운용 간담회

올스프링과 TDF 운영전략 소개
AI 빅사이클 대응... 韓 주식 비중 확대

“은퇴자산의 성패는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느냐보다 언제 손실을 겪었느냐에 달려 있다.”

프랭크 쿡 올스프링 글로벌솔루션부총괄은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NH아문디자산운용 '하나로 TDF 투자전략 간담회'에서 “은퇴 시점 부근의 큰 손실은 만회할 기간이 부족해 퇴직자산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이날 글로벌 운용 파트너 올스프링과 함께 타깃데이트 펀드(TDF)의 운용 전략을 소개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 줄이고 채권 등 안정자산 비중을 높이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이 자산배분 경로를 글라이드패스를



프랭크 쿡(Frank Cooke) 올스프링 글로벌솔루션부총괄이 18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하나로 TDF 투자전략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

고 한다. 쿡 총괄은 같은 30% 손실이라도 은퇴 2년 전 발생한 경우와 은퇴 8년 후 발생한 경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은퇴 직전에는 자산 규모가 크고 회복할 시간이 짧아 손실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는 “글라이드패스의 역할은 단순히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방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올스프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글라이드패스는 정적 6대40 혼합형 포트폴리오 대비 평균 최대 낙폭을 12% 줄이고 은퇴 시점 자산을 13.2%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마티아스 사이버 올스프링 멀티에셋부문 총괄은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그는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로봇·전력설비·원자력, 재산업화 흐름에 따른 조선·방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을 주요 기회로 꼽았다.

다만 최근 코스피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에 집중된 점은 위험 요인으로 봤다. 사이버 총괄은 “한국 증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특정 종목 의존도도 높다”며 “장기 은퇴자산은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환 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부총괄은 하나로 적격 TDF의 성과배경으로 적극적인 전술적 자산배분(T

AA)을 들었다. 올해 중등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3월에는 주식 비중을 줄였고, 이후 시장 반등 국면에서는 다시 비중을 확대했다. 채권은 고금리 환경을 감안해 비중 축소를 유지했다.

하나로 적격 TDF는 5월31일 운용펀드 기준 최근 5년 수익률에서 2025형이 39.52%로 유형 내 1위를 기록했다. 2030형은 56.94%, 2035형은 65.83%, 2040형은 72.54%로 각각 2위에 올랐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향후 AI 빅사이클에 대응해 한국 주식 편입 한도를 최대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 관련 투자도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CPU·GPU·AI 서비스 등으로 넓힌다.

김 팀장은 “하나로 TDF는 단순히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장기 은퇴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올스프링의 글로벌 운용 역량과 능동적 자산 배분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국민권익위-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상속 금융재산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이 예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상속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고, 절차가 복잡해 상속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 및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각 금융회사가 관련 서류를 공유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상속인의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상속인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 등 상속 관련 서류를 한 차례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 간 디지털 방식의 서류 공유 체계를 구축해 중복 제출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권익위는 내년 초 상속예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은행권 소액 예금을 중심으로 운영한 뒤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주의' 발령

변동성 급격히 확대... 손실 가능성 커져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위험 경고에 나섰다. 상장 12거래일 만에 관련 상품 시가 총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났지만 변동성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1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금감원이 발령하는

제도로 주의·경고·위험 순으로 구분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상품과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일명 곱버스)도 함께 운용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을 동시에 상장했다. 상장 당시 4조5000억원 수준이던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기준 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관련 상품을 8조2000억원 순매수하며 자금 유입을 주도했다.

단기 매매도 활발했다. 단일종목 레버

리지·인버스 상품의 하루 평균 매매회전은 122.5%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 주식의 평균 매매회전율(1% 미만)은 물론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평균(30.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특히 하락장에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속 하락했을 때 최대 낙폭은 18.0%였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하락폭은 35.9%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최대 추가 하락률은 19.1%였으나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최대 38.0% 하락했다. 일부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가

격 외곡 현상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장 직후와 장 마감 직전 시장가 주문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시간대에는 LP 호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제 순자산가치(NAV)와 거래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일반 ETF와 달리 분산투자 효과가 없고 특정 기업의 추가 변동에 직접 노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변동성이 매우 큰 고위험 상품”이라며 “투자 전 상품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질 경우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